광주 일부 학원, 영어유치원 편법 운영

"과도한 사교육비 등 사회적 문제 야기" 야기

"시 교육청, 편법 운영 실태조차 파악 못해"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이 3일 같은 주소지에서 편법 운영되는 유치원과 영어유치원 사진을 가리키며 영어유치원 편법 운영 실태를 지적하고 있다.

광주지역 일부 학원들이 유아들을 대상으로 편법적인 '영어유치원'을 운영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은 3일 오전 광주시교육청 본관 1층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아대상 학원(영어유치원) 운영 조사발표와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학벌없는사회가 지적하는 영어유치원은 유치원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학원으로 등록해 편법 운영을 하고 있는 곳들이다.

이 단체는 "유아 부모 커뮤니티(맘카페), 학원장과 유선전화 상담, 학원소재지 탐방, 각종 제보 등을 통해 자체적으로 실태를 파악한 결과 광주시 일부 학원에서 편법으로 반일제 이상 유아대상 교습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학벌없는사회는 영어유치원의 △과도한 교습비(연령대별로 60만~90만원, 방과후까지 100여만원 육박) △장시간 학습노동(일반유치원보다 1시간 길어) △문어발식 확장 운영(같은 주소지에서 여러 유치원 운영) △알선 및 부당이득 행위(유치원 원장이 영어유치원 등록 유도) △사회적 양극화 심화(영어유치원 신도시 밀집 현상) △안일한 행정지도(유치원 운영하지만 학원 등록으로 법 적용 피해와) 등의 문제를 지적했다.

학벌없는사회는 "특권교육의 출발점으로 일컬어지는 영어유치원이 과도한 사교육비 지출을 부추기고 유아를 대상으로 장시간 학습부담을 주는 등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반일제 교습 이상 유아대상 학원이 학부모들 사이에서 이른바 영어유치원으로 불리고 사립초등학교 진학으로 이어지는 특권교육 트랙이 공고해져 가지만 시 교육청은 영어유치원의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고형준 활동가는 "교육의 시작부터 달라지면서 교육격차, 교육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 교육당국이 영어유치원에 소극적으로 대처한 것을 반성하고 지금이라도 전수조사를 통해 제대로 된 실태파악과 피해구제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인호 기자

5·18행불자 가족 "유골이라도 찾고 눈 감고 싶었는데"

강정심氏, 옛 광주교도소 추가발굴 성과없어 "아쉽다"

2일 오후 광주 서구 한 카페에서 5·18행불자 가족 강정심씨(66)가 5·18 당시 사라진 사촌오빠 이야기를 하며 눈시울을 붉히고 있다.

"그래도 거기에 희망을 걸었는데…."

1980년 5·18민주화운동 당시 사라진 가족을 찾지 못한 5·18행방불명자 가족 강정심씨(66)는 2일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전날 광주 북구 문흥동 옛 광주교도소에서 5·18행불자 유골을 찾기 위한 추가 발굴 작업이 아무 성과 없이 종료됐다는 소식을 전해 들은 뒤였다. 강씨는 연신 "아쉽다", "참말로 아쉽다"며 씁쓸함을 감추지 못했다.

강씨의 삼촌 이철우씨는 80년 5월18일 집을 나선 후 소식이 끊겼다. 온 가족이 이씨를 찾아다녔지만, 어디에서도 소식을 들을 수 없었다.

가족들은 모두 '5·18 때 어디로 끌려갔을 것'이라고만 추측했다.

이씨는 아버지의 사촌 동생이니 '5촌 당숙' 뻘이지만 강씨는 그를 줄곧 '사촌오빠'라고 불렀다.

"당시만 해도 대가족 사회였어. 한 지붕 아래서 같이 밥 먹고 이불 덮고 자면 가족이제. 촌수가 멀다고 가족이 아닌가 그럼? 우리 아부지가 죽을 때까지 사촌 동생 꼭 찾아야 한다고 참말로 걱정을 많이 혔는디… 아직도 못 찾아서 내가 참 죄송하네…"

강씨는 80년 5월 이후 40년 가까이 숨죽여 지냈다고 했다. 그는 "그나마 지금은 세상이 참 많이 바뀌었다"는 말을 여러 차례 했다.

"그땐 그런 분위기였제. 지금이야 이렇게 5.18 이야기를 맘 놓고 하지. 5·18관련법이 없을 땐 우린 '폭도'였제. 사람 취급도 안혔어. 다 빨갱이라 혔지… 그때 사촌오빠를 안다고 하면 잡혀갈 수도 있었어. 그래서 가족이 사라졌는데 찾아달라고도 어디 말도 못 하고 숨죽이고 한동안 살았어. 죄지은 것도 없는디…"

5·18행불자 가족들은 다른 5·18 희생자 가족들보다 보상을 받을 길도 순탄치 않았다. 행불자 가족이라는 걸 입증하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1987년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후 90년에 1차 보상이 이뤄졌다.

신청자 2693명 중 인정된 이는 2219명이었다. 이 중 행불자 가족들은 단 39명이었다.

2차, 3차 보상도 상황은 비슷했다. 93년도 2차 보상자 1832명 중 행불자 가족은 46명, 98년도 3차 보상자 464명 중 행불자 가족은 17명뿐이었다.

"생계도 다 내버리고 뛰어들어 싸웠는데 자꾸 증거를 대고 증인을 데려오라고 해. 징하게도 힘들제. 5·18이 뉴스에 나올 때마다 사람들한테 손가락질도 당하면서 그렇게 지내왔는데…"

5·18보상은 2015년 7차를 끝으로 8차 보상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8차 보상을 위해서는 5·18보상법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 5·18보상법에 명시된 보상자 신청 기간 등 일부를 수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5·18 행불자 가족들은 수년에 한 번씩 5·18보상법 개정을 위해서도 싸워왔다. 지루하고도 반복된 싸움이었다.

이마에 깊은 주름이 잡힌 강씨는 40년 전 24살의 강정심으로 했던 다짐을 다시금 꺼냈다.

"이제 5.18 40주년이니깐 다시 한번 힘을 내봐야지. 죽기 전에는 가족을 찾고 죽어야 할 것 아녀. 인자는 우리 가족 좀 찾아달라고 말할 수도 있고, 빨갱이라고 손가락질하는 사람도 없으니, 죽기 전에 우리 사촌오빠 찾고 눈 감아야 우리 아버지도 볼 것 같어."

● 단신 ●

영광서 주택화재로 80대 남성 숨져

영광에서 목조주택에 불이 나 80대 남성이 숨졌다.

3일 영광소방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22분쯤 영광군 군서면 한 목조주택에서 불이 났다.

소방대는 신고 접수 40분 만인 오후 5시2분쯤 불을 껐으나 A씨(89)가 숨지고 주택 내부 56㎡가 탔다.

A씨 아들 B씨(70)가 밭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가던 중 불이 난 것을 발견하고 119에 신고했다.

B씨는 안방에 있던 어머니를 구했지만 불길로 A씨가 있던 방에는 접근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은방서 1억원 귀금속 훔친 10대 5명 체포

인천 계양경찰서는 금은방 출입문 등을 둔기로 부수고 무단침입해 1억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A군(18)등 10대 5명을 특수절도 혐의로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일 밝혔다.

A군 등은 1일 오전 3시 18분쯤 인천시 계양구의 한 금은방에서 출입문 등을 둔기로 부순 후 금목걸이 80여개 등 1억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군 등은 범행 후 택시를 타고 도주했지만 이날 오후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에서 추적중인 경찰에게 붙잡혔다. 체포당시 이들은 훔친 귀금속을 각자 나눠 가지고 있었다.

아울러 경찰은 공범 1명(17)을 쫓고 있다고 밝혔다. A군 등은 경찰 조사에서 "돈이 없어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사실을 인정했다.

앞서 지난 1월 21일 인천 부평구에서도 10대 남성이 같은 수법으로 금은방에서 귀금속을 훔쳤다 같은달 22일 자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A군 등은 지난 1월 발생한 부평구 10대 금은방 특수절도와 연관성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무면허 음주운전자가 또"…초등생 자매 사망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됐던 30대 무면허 운전자가 또 술을 먹고 SUV로 중앙선을 침범해 마주오던 SUV와 정면충돌했다.

이 사고로 피해 차량에 탑승했던 초등학생 쌍둥이 자매가 숨지고 부모는 중상을 입는 등 일가족이 참변을 당했다.

3일 경기 포천경찰서에 따르면 전날(2일) 오후 4시43분께 포천시 영중면의 왕복2차선 도로에서 이모씨(37)가 몰던 SUV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해 마주오던 SUV를 정면 충돌했다.

피해차량 뒷좌석에 탑승했던 초등학생 쌍둥이 자매(8)는 숨졌으며, 자매의 아버지(41)와 어머니(40)도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가해차량 운전자 이모씨(37)도 숨졌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전력이 있으며, 이날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다.

경찰이 현장에서 이씨의 사체를 채혈할 때 술냄새가 진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주~상주고속道 달리던 승용차서 불

3일 오전 7시54분쯤 충북 보은군 청주~상주고속도로 상주방향 보은IC 인근에서 A씨(51)가 몰던 승용차에 불이 났다.

이 불로 차량이 모두 타 소방서 추산 1380만원의 재산피해가 났다. 운전자는 곧바로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엔진부분에서 소리가 나 갓길에 세웠더니 불이 났다"는 운전자 진술 등을 토대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